Eugene's FICC Upd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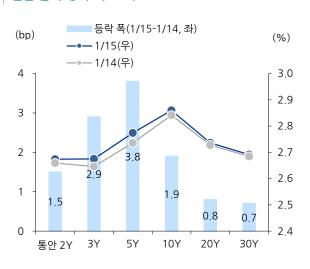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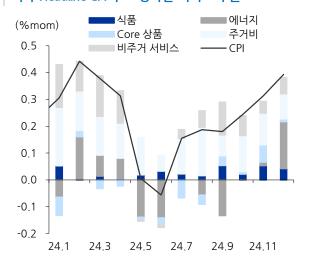
Fixed Income			(다위:	%,bp, 틱)
The difference	1/15일	1D	1W	YTD
	1,13 =			110

		1/15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675%	2.9	17.0	7.9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60%	1.9	6.4	0.5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8.5	19.5	29.1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52	-11.0	-41.0	-13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77	-46.0	-111.0	-15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65%	-10.3	-2.1	2,6
	미국채 10년물	4.654%	-13.9	-3.7	6.9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38.9	42.5	40.5	34.6
	독일국채 10년물	2.534%	-9.3	1.8	17.0
	호주국채 10년물	4.622%	0.7	12.0	25.4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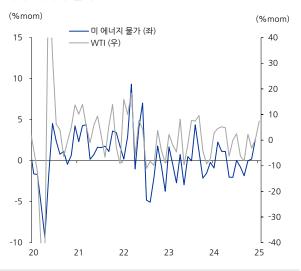
미국 Headline CPI 주요 항목별 기여도 구분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전일 CPI 경계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고, 외국인이 국 채선물 매도 늘린 영향 반영
- 12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환율 상승 여파로 작년 4월 이후 최고치 기록, 금통위 앞두고 부담감 가중.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만에 (-)전환했으나 일시적 둔화라는 인식 속 시장 영향 제한
- 오전 중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으나 당일 채권시장 에 미친 파급효과는 부재했던 것으로 여겨짐

미국 에너지 물가 및 WTI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근원 CPI,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전월비 둔화하여 금리 급락. 반면 에너지 가격 급등 속 헤드라인 CPI는 작년 3월 이후 9개월만에 가장 큰 전월비 상승폭을 시현
- 이번 물가 발표치를 가리켜 리치먼드 연은 총재, 인플 레가 목표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.
- 시카고 연은 총재, 물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최
 근 몇 달간 지표가 진전을 보였고, 주택물가도 차츰 진
 정되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발언
- 한편 뉴욕 연은 1월 제조업 지수는 작년 7월 이후 최저 치 기록하며 급락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

FX & Commodity (Etql: %, \$)					
		1/15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61.20	-0.1%	0.4%	-0.8%
	달러지수	109.06	-0.2%	0.0%	0.6%
	달러/유로	1.030	-0.1%	-0.2%	-0.6%
	위안/달러(역외)	7.35	0.0%	-0.1%	0.2%
	엔/달러	156.47	-1.0%	-1.2%	-0.4%
	달러/파운드	1,224	0.3%	-1.0%	-2.2%
	헤알/달러	6.01	-0.7%	-1.6%	-2.8%
상품	WTI 근월물(\$)	80,51	3.9%	9.8%	12.3%
	금 현물(\$)	2,696.33	0.7%	1.2%	2.7%
	구리 3개월물(\$)	9,217.00	0.7%	2.1%	5.1%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-2.00원 하락한 1,461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54.70원 마감.
- 간밤 미국 생산자 물가 예상치 하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달러 약세. 달러-원은 1,460.00원에 하락 개장.
- 장중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충돌 없이 체포에 응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잠시 낙폭을 확대했으나 이내 반등. 미국 CPI를 대기하면서 변동성과 방향성 모두 제 한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CPI를 소화하며 약세 지속.
- 12월 CPI는 헤드라인 물가가 +2.9%(Y) 상승해 예상에 부합했으나 Core CPI가 +3.2%(Y) 상승해 시장 예상치하회.
-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달러는 한 때 108대로 진입했으나 109선에서 일단 지지. 이번 데이터는 좋은 수준이지만 완벽에 가깝진 않았음.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시켰지만 불확실성은 잔존.
- 한편 엔화는 전일 우에다 BOJ 총재가 다음주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 밝히면서 강세 지속. 파운드는 영국 CPI 예상치 하회 속 국채 수익률이 하락 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반등을 이어감.
- 금일 한국 금통위 및 미국 소매판매 발표 예정.